

예보 시스템 부실 ... 고스란히 마셔야 하는 중국발 '독먼지'



광주·전남 3일째 ... 최고 191 $\mu\text{g}/\text{m}^3$ 피해 심각 초미세먼지 지역민에 실시간 예보체계 시급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울을 타고 국내로 유입, 광주·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지역민들이 각종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5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부터 중국에서 서울을 타고 날아온 미세먼지가 광주·전남지역에 유입되면서 이날 광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일(88 $\mu\text{g}/\text{m}^3$)보다 높은 101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 미세먼지 농도(55 $\mu\text{g}/\text{m}^3$)의 두 배에 육박한 수치다.

전남도 비슷하다.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남하하면서 같은 기간 전남지역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3일 52 $\mu\text{g}/\text{m}^3$ → 4일 73 $\mu\text{g}/\text{m}^3$ → 5일 76 $\mu\text{g}/\text{m}^3$ 로 급증했다.

지난 한 달 간 광주·전남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도심 자체 배기 가스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0~30 $\mu\text{g}/\text{m}^3$)으로 분류된 날이 절반(광주 12일·

전남 15일)에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정도가 심해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오후 8시 광산구 오선동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91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고 같은 날 밤 9시 광양시 태인동 미세먼지 농도도 188 $\mu\text{g}/\text{m}^3$ 로 '나쁨(121~200 $\mu\text{g}/\text{m}^3$)'으로 분류됐다.

미세 먼지는 인체에 유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폐 질환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예보 시스템은 광주·전남 지역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마저도 하루 한 차례만 발표하고 있어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언제 소멸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광주 7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설치가 이뤄져야만 파악이 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데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예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 2015년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경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93 $\mu\text{g}/\text{m}^3$ 를 기록,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겨 사상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돼지고기가 씻겨준다? ... 효과 입증 안돼

천식·심장질환자 외출 삼가야

중국에서 날아온 지름 10 μm 이하의 미세먼지가 며칠째 전국 하늘을 뒤덮자, 호흡기 건강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사용과 수분 섭취를 권하고, 특히 폐 기능이 약한 천식·비염 환자나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들어온 먼지는 1차로 코털, 2차로 기관지의 섬모(털)를 거치면서 걸러진다. 그러나 미세먼지(지름 10 μm 이하)와 초미세먼지(지름 2.5 μm 이하)의 크기는 각각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털이나 기관지를 통해 여과되지 않고 바로 폐포에 흡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한 번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남게 된다. 이렇게 기관지나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결국 코나 기도 점막에 자극을 줘 비염·중이염·기관지염·후두염·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또 미세먼지의 독성물질이 모세혈관에 유입되면 혈액의 점도(끈끈한 정도)가 커져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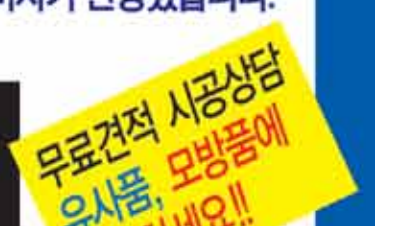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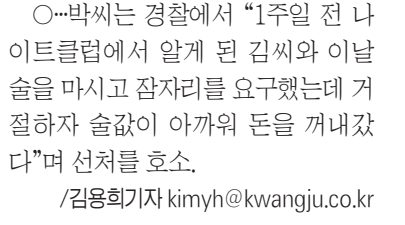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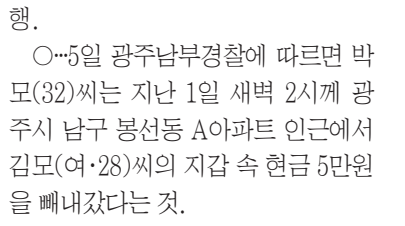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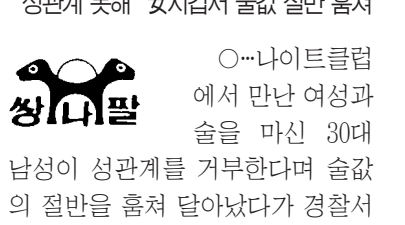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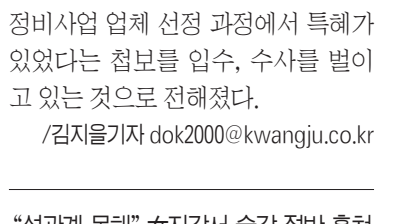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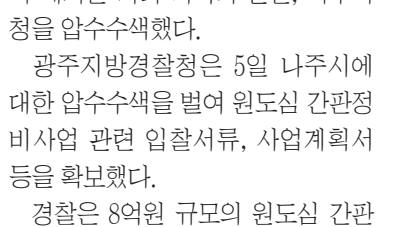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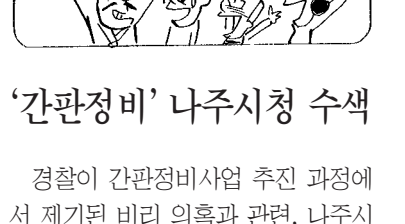
미세먼지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일반 면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특히 호흡기 관련 입과 코는 물로 자주 헹구주는 것이 좋다.

시중에는 돼지고기 지방이 입과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를 씻어 준다는 속설이 있으나 아직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연합뉴스

나원참 (9033)



희뿌연 광주

5일 오후 안개와 미세먼지에 가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빌딩에서 조선대학교 캠퍼스 모습이 간신히 시야에 들어올 정도다. 이 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시 동구 서석동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87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채군 가족부 불법유출 개입 의혹 안행부 국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의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 개인 서류와 명함집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김 국장에게 현장 일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국장은 다른 사무실에서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 국장은 전남 청와대

의 발표 직후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 국장 외에 제3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필로폰 탄 술 먹여 친구 성폭행 '엽기부부' 남편 7년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아내의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30대와 이를 공모한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최근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자주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와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전모(여·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김씨는 전씨와 2대1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16일 오후 6시에 여자친구 A씨를 광주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3~5월 사이에는 포항, 부산, 광주 등

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27차례, 아내인 전씨는 25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김씨는 '한국 상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명신대 폐쇄명령 정당"

교육부가 증대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명신대에 내린 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명신대는 순천에 있던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11년 4월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성관계 못해" 여자집서 술값 절반 훔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술값의 절반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서 행.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2)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에 광주 남구 봉선동 A아파트 인근에서 김모(여·28)씨의 지갑 속 현금 5만원을 빼내갔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1주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김씨와 이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술값이 아까워 돈을 꺼내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1층 주차장	A타입 27평 2세대	4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2층	A타입 27평 2세대	5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담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